

미술출판의 진정한 모습

강우방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얼마전부터 '춤의 해'이니, '책의 해' '국악의 해'이니 하여 매년 한 분야를 내세워 활발한 선전과 활동으로 한 해를 꾸미곤 하여 왔다. 이것은 자칫 겉치레로 끝날 경우가 많으며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어서 그리 뚜렷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매년이 춤의 해인 동시에 국악의 해이며 책의 해가 아닌가, 우리나라처럼 구호가 많으며 그냥 구호로 끝나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그러나 금년이 '미술의 해'로 정해졌으니 이를 계기로 더욱 진지하게 여러가지 반성의 기회도 갖고 미래를 향한 재정립의 시도를 피하여 본다면 그 나름의 뜻이 없는 것도 아닐 것이다.

우선 금년이 '미술의 해'라고 할 때 그 미술의 개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회화·조각·건축 등 조형미술의 활동에 한정되기 쉽다. 그런데 실제로 아마도 현재의 미술 활동을 염두에 두고 그런 구호를 정하였을 것이다.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의 현대미술은 아직도 그 기반을 전통미술에서 찾지 못하여 서양미술의 아류에 머물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서양화가들 가운데 한국의 전통미술을 올바르게 볼 줄 아는 화가는 의외로 매우 드물다. 그런 사정은 한국화가들도 마찬가지로 여서 전통미술의 참된 이해는 모든 화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전통문화를 지식으로 알 뿐 체험을 통하여 생활화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화단의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양미술의 소재를 서양화의 방법으로 재구성한다는 것 자체에 나는 회의를 느끼고 있다. 그러한 행위는 서양의 화가들이 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화가들이 할 일은 아니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시도로 끝나야지 일생동안 추구할 성질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때때로 서양미술에서 동양적인 것을 느끼고, 동양미술에서 서양적 요소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각각의 길을 끝까지 추구하였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미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미술은 역사적으로 여러 지역과 민족에 전파되면서 크게 변화하여 왔다. 그러기에 지역양식이라든가 민족양식이란 말이 생겨났다. 현대에도 비록 지구가 한 마을이 되었지만 여전히 지역과 민족에 따른 변화가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의 현대미술도 한국의 전통미술을 끝까지 추구하여 나갈 때 한국 나름의 현대미술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 현대의 실험적 미술행위도 전통미술의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금년 '미술의 해'에는 전통미술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망되므로 현대미술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통미술을 포함한 전체적 조망이 있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미술출판계에 있어서도 현대미술뿐만 아니라 전통미술을 함께 다루어 필연적 관계를 맺도록 유도하였으면 한다. 현대미술가나 평론가는 늘 전통미술을 의식하며 또 전통미술연구자는 늘 현대를 의식하며 작업할 때 비로소 서로 교섭하며 전통미술을 오늘에 살리고 미래를 향한 현대미술의 활로가 열리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미술출판계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한 역사의식이 투철한 도서들을 엄선하여 출판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술도서 출판에는 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작품들의 인쇄에 세심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원작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쇄된 것을 통하여 작품을 이해하여야 하므로 원작품의 색감(色感)을 가능한 한 살리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우리는 원작품과 전혀 다른 색감의 인쇄물에 자주 접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오히려 안목이 무디어지며 진부(眞否)를 가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결국 '미술의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올바르게 훌륭한 안목을 길러 이 사회를 쾌적한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고 확신한다.

특별대담	2	“출판단지, 동북아 문화발신기지로 육성” 김도현 문체부차관 대 이기웅 이사장
초점	6	‘색깔있는’ 기획력에 승부거는 미술출판 시장의 협소함을 수확대로 돌피구 마련
작가가 읽은 명화	7	예술판화의 거장·노신과 캐테 콜비츠
책과 미술의 만남	8	“소녀의 책임기는 러시아의 밤을 밝힌다” - 신항섭 ① 안드레이 밀니코프의 「책읽는 소녀」
출판 시론	10	“출판은 더이상 정보전달 매체 아니다” - 이종한
표지 인터뷰	11	‘책 아닌 책’에서의 무한한 책임기 책을 소재로 한 작품세계 구축한 조각가 이흥수씨
출판화제	12	社史편찬으로 열기 높은 출판계 老鋪들
출판인 칼럼	13	隱石·玄岩 두 어른의 歡談 - 최덕교
	14	‘출판마케팅’ 응용한 새로운 판매전략 활기
신춘 에세이	16	이젠 이별해야 할 농경사회의 정서 - 황현산
	17	영상매체 시대의 책 만들기 - 송 영
책과 사상	18	열린사회 제창한 비판적 합리주의자 - 신중섭 20세기 철학사에 위대한 자취 남긴 칼 포퍼
서평	22	김재환 「한국 동물우화소설 연구」 - 김열규 박호성 「평등론」 - 신광영
	23	홍승직 「사회발전과 한국인의 가치문제」 - 차재호
	24	베르 베르만 「π의 역사」 - 이면우 이운재 「환경휴머니즘과 새로운 사회」 - 구도완
학대 서평	25	르네상스 이후 출현한 다양한 ‘이즘’ 조명 - 강정인 차하순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서양의 지적 운동」
이 책 그 사람	26	「스트레스는 인생의 양념」 낸 황성주씨 「한국의 역술·역술인」 펴낸 김성률씨
	27	「네트워크 오디세이」 펴낸 문정식씨 「서울시의원들」 펴낸 김태수씨
세계의 출판	30	유럽 유명작가·출판사의 새해 설계 웅거 탄생 1백년 기념도서 외 어린이 책/신간안내/새로나온 책/독자서평
	48	재미있는 책 이야기
표지 작품/ 이흥수 작 「꽃」(관련기사 11면)		